

1월 20일 오후 8시 56분 강원도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은 서울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 다행히 인명이나 국가기간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진 학자들은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 지진이 잦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건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6건이 되었다.

지진 관측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잡히지 않던 지진까지 감지돼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의 지진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특정한 시기에 많은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지진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30~50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는 한반도 땅 밑에 '지진의 눈'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4개의 지각판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지면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퍼져 지진 연구의 기초가 되는 단층연구를 제대로



불자 세상보기

이 기 신
조계종 성문화재위원장

문화유산 지진대비 실패는?

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 단층 연구는 일제 강점기 또는 1960년대 만들어진 자료가 대부분으로 그 이후에는 대규모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진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나 산사태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집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진 피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실무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존의 문화재보

호법에 지진 피해로부터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일로는 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성질 또는 형상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표에 건립된 건조물인 성곽, 목조건축, 탑을 비롯한 석조물 등의 도괴를 방지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전시하거나 수장하고 있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시설 등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전시 또는 수장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규정에도 지진에 대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예컨대 내진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흔들거나 무너질 경우 진동장 속에 전시 중인 유물의 안전을 위한 전시방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리석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불자의 눈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이고 모든 발전의 코드가 세계화로 조정이 맞춰지고 있다. 종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서양의 종교가 동양의 정신을 뚫고 들어와 영역을 넓히고 있고 동양의 종교가 서양의 생활과 가치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불교의 간화선도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철학 공부'의 수준에서 접근했던 학자들이 실습수행에 폭 빠지기도 하고 한국의 스님에게 선을 배우고 출가한 서양의 젊은이도 많다.

종교는 지역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에 큰 폭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종교이기도 하다. 종교가 말하는 주제가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는 인간의 본래 면목을 추구하며 현상계의 허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물질 본위의 사고를 가졌던 서양에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한국불교를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최근 조계종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볼 때, 24개의 교구본사 가운데 8개 교구본사가 국제

불교 세계화 내실 찾기

'진면목' 전할 지도 그리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선사 한마음선원 등 7개 사찰도 국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JTS 등 11개 단체도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은 137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북미지역이 84곳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이 36곳이다. 조계종을 범위로 한 조사였으므로 다른 종단과 단체의 국제 교류활동을 합하면 수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조계종이 파악한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해외 교류의 초석을 다진 셈이라는 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국제교류의 방식이 각종 지원을 위한 경우가 많고 해외 사찰이나 문화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우의 확대인 경우가 그 대수이다. 국제교류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원이나 구호 사업과 문화교류의 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의 자비 봉사정신을 세계 곳곳에 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타행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내면적 진면목을 제대로 세계에 전할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뤄진다. 무엇이 한국불교의 진면목일까? 간화선이나 원효의 사상, 호국불교의 전통, 문화이나 다도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 등 많은 것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진면목을 세계무대에 맞게 정돈하고 체계적으로 전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남이 가니가 나도 장에 간다는 식의 세계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것을 세계무대에 내놓기 위해서는 세계무대를 살살이 분석하고 정확한 보급로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내놓은 자료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유용한 '지도'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들었다 교육계의 '이권'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열반경>

'오호 통재라...'

특정 과목 교사와 단체들이 2009년부터 시행될 새 교육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부기관과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와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각계 이해가 얽힌 권력투쟁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을까.

교육부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고 2·3학년의 필수과목 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자 교육부총리가 현행 체제 유지안 발표를 통해 물러났다. 그럼에도 교사나 교육단체들은 자신들의 담당 과목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수업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 과목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의도대로 만일 필수과목 수를 늘린다고 생각해보자, 학생의 내신 부담은 커지고, 새 과목의 사교육이 변질할 것은 뻔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도 '권력다툼'을 벌이니,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비난이 과목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으나, 따져보면 세상에 필요치 않은 과목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우리의 교육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나에 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교육의 참뜻과 올바른 도리를 다시금 되새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때다.

■ 김주일(해제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불교복지' 인프라 더 확대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양극화 해소'일 것이다. 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 살리기와 빈부격차 해소에 관한 공약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민 개인의 기본적 욕구와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제도적 틀만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틈새 매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종교단체·비영리단체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공공복지와의 상호 보완·협력관계 속에서 사회전체의 우리나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종교계의 참여는 국가에서 볼 때 훌륭한 민간자원일 수밖에 없다.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지역사회는 종교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이념적 실천의 장이기에, 지역사회를 통한 복지활동은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종교계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2003년도 기준으로 천주교가 279억원(47.3%), 기독교가 170억원(28.7%), 불교가 97억원(16.5%)순으로 나타났다. 3개 종교가 전체 종교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대부분인 9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불교계는 이웃 종교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복지활동 체제에 돌입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종단에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국내복지현장 지원 뿐 아니라 국제적 구호활동으로도 영역을 넓혀 가

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불교복지와 불교문화복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평소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행'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흔히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전에 회사를 하며 생활 속에서 복을 짓고 선행을 한다. 불자들의 회사금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후원금이 되며,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갈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는 행(行)이 된다.

최근에는 불교계에서도 '1% 나눔 운동'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현장체험 기회·차별화된 프로그램 늘리자

이렇듯 불교의 생활양식과 사상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육바라밀의 행을 함으로써 나와 이웃을 도울 기회를 주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나눔과 참여를 위해 우리 불교 복지계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성직자 및 신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불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으로 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화되고 차별화된 불교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올 한해 불교 복지계가 연구·실천해 나가야 할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불교는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실천적 종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등고로 밝은 복지세상 만들기'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징(진각복지재단 기획실장·성북구의원)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역팔만사백전장경 목목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목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목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 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해 불이 호위하시며 세계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안이나 사구들의 건강이 영려되시면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준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몸살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령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흥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팔 패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보급가: 2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증 및 교육안내

◇입증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증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주민등록 등본 2통.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여권용 사진 5매.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